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사람의 본성과 인위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편지를 쓰네. 사람이 배울 수도 없고 앓을 수도 없지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고 한다네. 반면 배울 수 있고 앓으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爲]라고 하네.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분별[性僞之分]이라네. 그러므로 반드시 성인의 교화로 인도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라네. ... (후략).

- ①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②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하여[求放心]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 ③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④ 타고난 본성[性]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⑤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齊物]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으로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의 포괄적 사회화, 즉 공적 투자의 창출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을: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회주의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쟁 사회의 사유 재산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 시스템이야말로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유 보장 방법이다.

- ① 갑: 정부는 사유 재산제 철폐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② 갑: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③ 을: 정부 규모를 확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계획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부는 재화의 재분배를 위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선의 이데아 때문에 올바른 것이 유익하게 된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을: 이성을 사용하면서 발명과 발견을 중시하지 않아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 형식 논리학의 경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지 않고 기존 지식을 맹신함으로써 우상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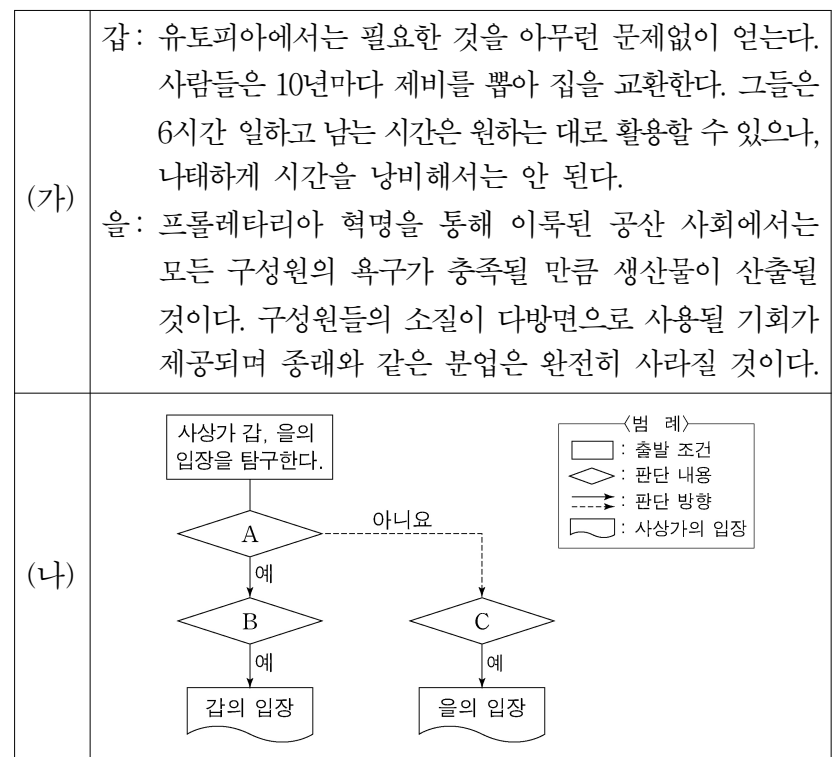
- ① 갑: 참된 지식은 이성으로 파악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 ② 갑: 국가를 통치하는 자에게는 오직 지혜의 덕만이 필요하다.
- ③ 을: 새로운 지식은 귀납 논리가 아니라 연역 논리로 얻어진다.
- ④ 을: 인간은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
- ⑤ 갑, 을: 관찰과 실험만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교학(敎學)과 지관(止觀)을 함께 해야 한다. 교종은 외적인 공부에 치중하고, 선종은 내적인 공부에 치중한다. 따라서 내외겸전(內外兼全)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다운 수행의 방법이 아니다.  
을: 선정(定)은 본체[體]이고 지혜[慧]는 작용[用]이다. 지혜는 본체를 마주하여 나온 작용이므로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작용을 마주하여 나온 본체이므로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 ① 갑: 모든 존재는 자성(自性)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다.
- ② 갑: 경전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참선 수행까지 할 필요는 없다.
- ③ 을: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
- ④ 을: 선(禪)은 부처의 말씀과 같고 교(敎)는 부처의 마음과 같다.
- ⑤ 갑, 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無常]을 깨달아야 한다.

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 소유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가?  
ㄴ. B: 이상 사회에서는 성인의 노동과 지적 활동이 보장되는가?  
ㄷ. C: 이상 사회에서는 계급이 사라지고 자아실현이 가능한가?  
ㄹ. C: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6. 가상 대화의 ‘스승’은 동양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궁리(窮理)'란 무엇입니까?

1

궁리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직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네. 사람이 양지(良知)를 지니고 있지만 궁리하지 못함은 아는 데에서 모르는 데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네.

2

그렇다면 궁리와 관련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란 무엇입니까?

3

㉠

4

- ①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서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는 것이네.  
 ②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고요하게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네.  
 ③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네.  
 ④ 타고난 양심을 지켜 내고 본성을 함양하여 늘 성찰하는 것이네.  
 ⑤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없애서 본래의 바름을 회복하는 것이네.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인간이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이다.  
 을: 존재하는 것에 대해 보편적 정의를 내려 무지를 자각하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경건한 것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처럼 말이다.  
 병: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좋음을 추구한다. 인간에게 있어 좋음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여러 탁월성 중에서 최상의 탁월성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 ① 갑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인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모든 악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무지에서만 생긴다고 본다.  
 ③ 병은 실천적 지혜로써 질투에 대한 중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④ 갑은 을과 달리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⑤ 병은 을과 달리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8.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사람들의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원한을 해소하고 서로를 살리며[解冤相生], 은혜를 갚는 것이 새로운 안정을 얻는 첫걸음이다.  
 (나) 일원상(一圓相)이라는 근원과 삼학(三學)으로써 진리를 얻어, 영혼과 육체를 함께 닦고[靈肉雙全] 도학과 과학을 함께 발전시켜야[理事並行] 한다.

- ① (가):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② (가): 무속과 도가를 재해석하여 시대 혼란에 대응해야 한다.  
 ③ (나): 종교적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도 병행해야 한다.  
 ④ (나):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여 불교의 생활화를 지향해야 한다.  
 ⑤ (가), (나): 성리학적 질서만을 근본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9.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본성은 없다.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 구상하고 바라는 대로 있게 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리이다.  
 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의한 죽음은 언제나 자기를 삶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 절망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칼이 사상을 죽일 수 없는 것과 같다.

- ① 갑: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② 갑: 인간은 삶의 객관적 목적 실현을 위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③ 을: 실존의 최고 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④ 을: 인간은 주체적 결단보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⑤ 갑, 을: 자신의 실존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해야 한다.

10.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 상대를 먼저 제압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가는 한 그들은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는 법에 따라 다툼을 해결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으므로 재산의 향유가 불확실합니다. 개인들은 각자의 소유를 더 잘 보존하고자 계약을 맺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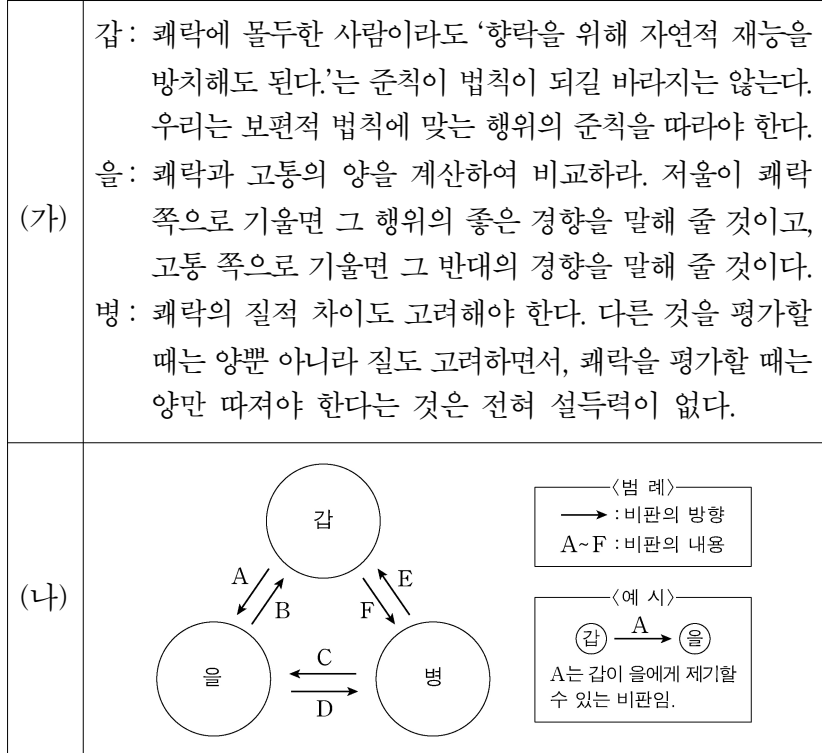
갑



을

- ① 갑: 평화와 안전은 자연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장된다.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 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한다.  
 ③ 을: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④ 을: 인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  
 ⑤ 갑, 을: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

11.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F: 도덕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② B: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방법임을 간과한다.  
 ③ C: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임을 간과한다.  
 ④ D: 행위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함을 부정한다.  
 ⑤ E: 쾌락의 추구가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한다.

12.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대도(大道)가 무너지니 인(仁)과 의(義)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다.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

을: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어도 괴롭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슬프다. 본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 법이다. 인과 의 또한 괴롭고 슬픈 것으로, 사람이 본디 갖춘 것이 아니다.

〈보기〉

ㄱ. 갑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과 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목적 없이 노니는 것[逍遙]이야말로 자유의 경지라고 본다.  
 ㄷ. 갑, 을은 큰 나라에 많은 백성이 있어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  
 ㄹ. 갑, 을은 아름다움과 추함[美醜]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리스도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누구든 신의 나라에 도달할 때 믿음과 소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만은 더 크고 강하게 영속하기 때문이다.

을: 인간은 면죄부가 아니라 신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 신에게 순종할수록 죄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신에게 거역할수록 죄의 세력은 강해진다.

〈보기〉

ㄱ. 갑은 악을 신이 창조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ㄴ. 갑은 믿음, 소망, 사랑을 종교적 덕이 아닌 도덕적 덕이라고 본다.  
 ㄷ. 을은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구원이 은총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모두 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신의 본성이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이다.
(나)	제자: 자유로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 ㉠ 존재라네.

- 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음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② 인격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③ 이성을 통해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  
 ④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결정된 삶에서 벗어나는  
 ⑤ 자기 보존의 욕망을 단념함으로써 덕 있는 삶을 추구하는

1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仁)이란 무엇일까요? 인은 자기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이 모두 어질게 될 것이니, 인의 실천은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 ① 예를 행할 때는 검약하지 말고 가급적 사치스럽게 해야 한다.  
 ②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해야 한다.  
 ③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예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④ 효는 부모가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항상 예로 모시는 것이다.  
 ⑤ 백성을 예로 대해야 백성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다.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1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기(理氣)의 분별이 있다. 같음 속에 다름이 있으니, 사단은 이(理)를 위주로 칠정은 기(氣)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이들을 나누어 배속시키는 것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을: 사단은 기가 발(發)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한다.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발(氣發)이며, 측은의 본(本)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승(理乘)이다.

16.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사단의 정(情)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이 모두 같은가?
- ㄴ.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까닭(所以)은 이(理)인가?
- ㄷ. 인과 측은지심은 모두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탄 정인가?
- ㄹ.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명칭은 행사(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남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 하고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라 한다. 손님과 주인이 공손히 인사한 뒤에야 예라는 명칭이 성립한다.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라는 명칭이 세워진다.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낱말이 어찌 복숭아씨와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로따로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도덕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緒]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선천적인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사덕은 태어난 순간 마음 안에 갖추어진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따라 실천하여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을: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交利)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① 갑: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는 달성된다.
- ② 갑: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을: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을: 친소(親疎)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 ⑤ 갑, 을: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해야 한다.

1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본성은 고통의 부재인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인간 본성에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라. 부자나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위해 너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라. 이성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보 기>

- ㄱ. 갑: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 ㄴ. 갑: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 ㄷ. 을: 평온한 삶을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ㄹ. 갑, 을: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나의 활동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영역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축소될 때, 나는 강제 받고 있거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을: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노예와는 달리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보 기>

- ㄱ. 갑: 국가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ㄴ. 을: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다.
- ㄷ. 을: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ㄹ. 갑, 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